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과 경제적 영향

정동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dyjeong@kiep.go.kr, 044-414-1167)

김초롱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crkim@kiep.go.kr, 044-414-1124)



차 례

1. 코로나19 확산 동향
2. 경제적 영향
3. 각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
4.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코로나19 확산 현황] 1차 봉쇄조치 완화 후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 6월 말~7월 초 일일 확진자 수가 정점을 기록했으나, 방역조치 재도입 등을 통해 7월 이후 신규 확진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주변국 대비 낮고, 키르기스공화국은 확진자 사망률이 비교적 높은 특징을 보임.
 - 코카서스 지역에서는 조지아가 바이러스 확산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 반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그중 아르메니아는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16번째로 많음.
- ▶ [경제적 영향]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서비스 생산, 교역, 국내 소비 등이 위축되면서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2020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공화국이 2020년 상반기 각각 -1.8%, -5.3% 역성장한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은 서비스업·건설업·도소매·농업 등에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0.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코카서스 지역은 2/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2020년 상반기 -2~5.8%의 역 성장을 기록함.
 -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자원수출국인 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스탄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충격을, 해외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키르기스공화국·아르메니아·조지아는 러시아 경기 둔화에 따른 송금액 감소로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 ▶ [대응방안] 각국 정부는 확진자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코로나19 특별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경제 부문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면제, 납부기한 연장, 대출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등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금리를 인하함.
 -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실업과 소득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현금지원과 더불어 연금, 육아지원금, 각종 보조금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식료품 가격 상한제 도입, 공공요금 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 [전망 및 시사점] 2020년은 코로나19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며, 2021년은 주변국의 경기회복과 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 양(+)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
 - 자원수출국은 국제원자재 가격 회복, 자원 생산 및 수출 증가를 통해, 키르기스공화국·아르메니아·조지아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의 경제 회복에 따른 송금유입액 증가를 통해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방역조치 완화 시 확산이 가속화되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국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각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및 보건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도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과 의료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1. 코로나19 확산 동향

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¹⁾

■ 중앙아시아는 3월 중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6월 제한조치 완화 후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7월부터 2차 대응조치를 실시해 관리하고 있음.²⁾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6월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7월부터 다시 제한조치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카자흐스탄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임.
 - 9월 13일 기준 누적 확진자(사망자)는 카자흐스탄 13만 6,384명(1,948명), 우즈베키스탄 4만 7,042명(388명)임.³⁾
 - 카자흐스탄의 월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6월 365.3명, 7월 2,169.6명, 8월 1,341.8명이며, 우즈베키스탄은 6월 158.1명, 7월 492.2명, 8월 583.6명 수준임.
- 키르기스공화국은 5월 비상사태 해제 후에도 고강도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체계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 키르기스는 3월 19일에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9월 13일 기준 누적 확진자 4만 4,881명, 사망자 1,063명임.⁴⁾
 - 키르기스는 주변국(카자흐스탄 1.37%, 우즈베키스탄 0.76%)과 비교할 때 코로나19 확진자 사망률이 2.42%로 높은 편임.
- 중앙아시아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이후 각종 제재조치를 완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으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함.
 - 카자흐스탄은 일평균 확진자 수가 3~5월간 139.2명에서 6~8월간 1,433.2명(6월 평균 365.4명)으로, 1차 봉쇄조치(lockdown) 완화 후 6월부터 급격하게 증가함.⁵⁾
 - 우즈베키스탄은 일평균 확진자 수가 3~5월간 139.2명에서 6~8월간 433.2명으로, 키르기스는 3~5월간 23.6명에서 6월 이후 482.5명으로 증가함.

나. 코카서스 지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 남부 코카서스 지역⁶⁾에서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으며, 조지아는 바이러스 확산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1차 봉쇄조치 해제 후인 5월 말부터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해 6월 말 일일 확진자 수가 정점을 기록했으나,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임.

1) 중앙아시아 5개국 중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공화국 3개국만 선별함. 타지키스탄은 4월 말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의 공식 확진자 수는 0명임.

2) 각국의 전체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은 카자흐스탄 0.7%, 우즈베키스탄 0.13%, 키르기스 0.67%임.

3)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검색일: 2020. 9. 14).

4)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검색일: 2020. 9.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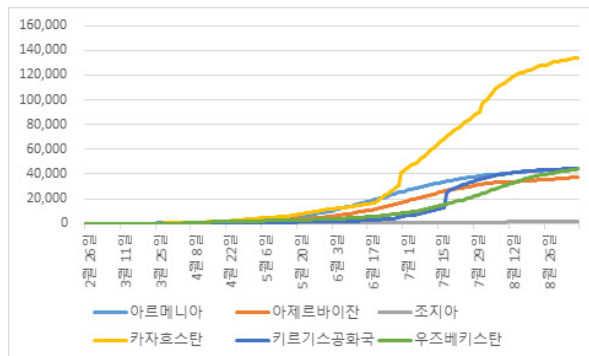
5) 카자흐스탄은 7월 초 무증상 확진자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통계에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함. Tengrinews.kz(2020. 7. 5), “Резкий прирост” Казахстана в зарубежной статистике по коронавирусу объяснил Пой”(검색일: 2020. 9. 2).

6) 코카서스 산맥 남부의 흑해와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를 의미함. 코카서스 북부는 러시아 영토임.

- 9월 13일 기준 누적 확진자(사망자)는 아르메니아 4만 5,862명(916명), 아제르바이잔 3만 8,172명(559명)임.⁷⁾
-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일일 확진자는 6월 25일 기준 각각 771명, 59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해 9월 첫 주에는 일평균 아르메니아 147.6명, 아제르바이잔 145.4명이 발생함.
- 아제르바이잔은 확산세가 진정됨에 따라 8월 5일부터 2차 봉쇄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으나, 8월 11일 일일 확진자 수 79명으로 저점을 기록한 후 8월 30일 188명까지 증가해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⁸⁾
- 조지아는 9월 13일 기준 확진자가 2,227명, 사망자가 19명을 기록함.
- 바이러스 발생 이후 최근까지 일일 확진자를 두 자리 수 이내로 통제해 왔으며, 국가질병통제센터 산하 리차드 루거 공중보건 연구센터(Richard Lugar Public Health Research Centre)를 통해 빠른 검사 및 역학조사가 가능했던 것이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평가됨.⁹⁾
- 그러나 9월 12일과 13일 일일 확진자가 150명을 넘으면서 바이러스 확산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음.
- 세계 다른 지역 대비 확진자 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아르메니아의 확산 현황은 심각한 수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1만 5,165명으로 세계 16번째로 많음.

그림 1.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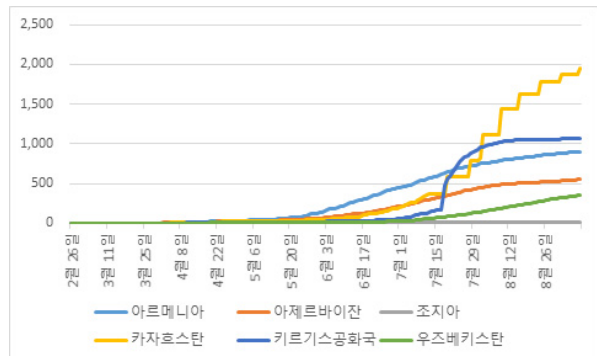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검색일: 2020. 9. 9).

그림 2.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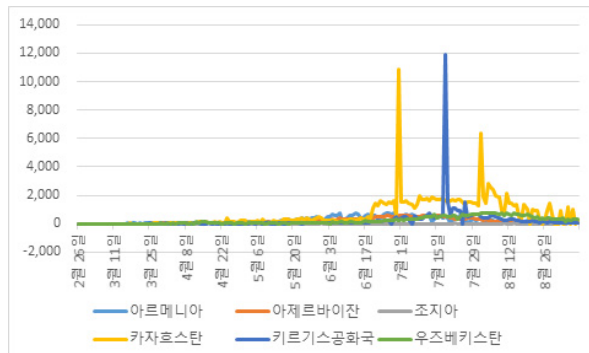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검색일: 2020. 9. 9).

그림 3.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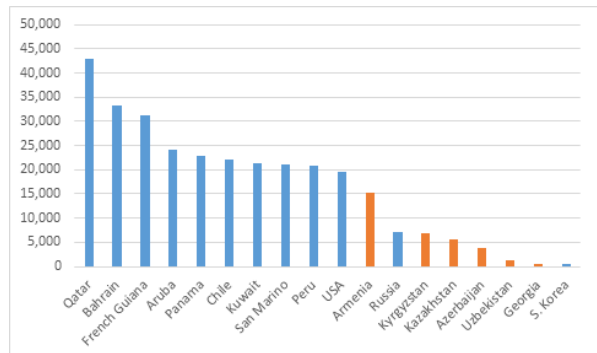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검색일: 2020. 9. 9).

그림 4. 주요국의 인구 백만 명당 확진자 수

(단위: 명)



주: 인구 백만 명당 확진자 수 1~10위 국가(카타르~미국)와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 비교.

자료: Worldometer(검색일: 2020. 9. 9).

7)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검색일: 2020. 9. 14).

8)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8월 5일 외출제한을 해제하고 8월 31일부터 엄격한 봉쇄조치 적용지역을 축소함. MENAFN(2020. 8. 29), "Lockdown extended in country"(검색일: 2020. 8. 4).

9) EmergingEurope(2020. 6. 23), "Azerbaijan, Armenia see alarming rise in Covid-19 cases"(검색일: 2020. 9. 8).

2. 경제적 영향

가. 경제성장률 하락

■ [중양아시아]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서비스 생산, 교역, 국내 소비 등이 위축되면서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공화국이 2020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 2020년 상반기 카자흐스탄의 GDP는 국제유가 하락, 지역봉쇄, 경제활동 중단 등으로 인해 산업생산이 위축되어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함.¹⁰⁾
-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제조업(3.2%)과 건설업(11.2%)이 성장했으나, 서비스 부문은 코로나19의 여파로 -5.5%의 역성장을 기록함.¹¹⁾
- 키르기스공화국은 2020년 상반기 GDP가 전년동기대비 5.3% 감소함.¹²⁾
- 같은 기간 산업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0.1%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14.7% 감소했는데, 특히 물류·운수업(-32.8%), 숙박·외식업(-38.2%)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¹³⁾
-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국경폐쇄로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32.2%)하면서¹⁴⁾ 2020년 상반기 총교역이 전년동기대비 22.4% 줄어들었으나,¹⁵⁾ 금 수출량과 가격이 동반상승하면서 수출은 소폭 증가(2.4%)함.¹⁶⁾
- 2020년 상반기 우즈베키스탄 경제성장률은 0.2%로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중양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순성장을 유지함.¹⁷⁾
- 산업생산지수는 98.1(2019년 상반기 104.8), 서비스업 성장률은 2019년 상반기 12.7%에서 2.6%로 급락했으며, 건설업은 같은 기간 23.7%에서 7.3%로, 소매업은 6.4%에서 0.7%로 감소한 반면 농업, 임업, 어업 부문은 전년동기대비 2.4%에서 2.8%로 증가함.¹⁸⁾

■ [코카서스] 2020년 1/4분기에는 경제성장을 이어갔으나 코로나19 확산 및 그에 따른 방역조치, 유가와

10)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РК(2020. 8. 14), "ВАЛОВОЙ ВНУТРЕННИЙ ПРОДУКТ ЗА ЯНВАРЬ-ИЮНЬ 2020 ГОДА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ДАННЫЕ)," Пресс-релиз(검색일: 2020. 9. 1); EIU, Country Report, Kazakhstan, August 2020, p. 8.

11) Ibid: Пресс-служба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2020. 4. 21), "В этом году реализуются масштабные проекты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А Мамин"(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9. 1).

12) RG.RU(2020. 8. 5), "Тренд на снижение"(검색일: 2020. 9. 1).

13)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Р(2020),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январь-июнь," pp. 70-72, p. 93.

14) ADB(August 2020), "COVID-19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Оценка воздействия н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и уязвимость и ответные меры политики" p. 15; Новости Кыргызстана(2020. 8. 27), "Импорт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сократился"(검색일: 2020. 9. 1).

15)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2020),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январь-июль," p. 61.

16) 쿼터 금광은 국내 산업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목표 생산량은 전년보다 7~13% 낮게 책정되었지만 국제 금값 상승에 힘입어 생산업체와 정부의 세금 수익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Sputnik(2020. 8. 17), "Более 10 тонн золота продал Кыргызстан за первое полугодие"; ADB(August 2020), "COVID-19 в КР: Оценка воздействия н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и уязвимость и ответные меры политики," p. 30(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9. 2).

17)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У по статистике(2020),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p.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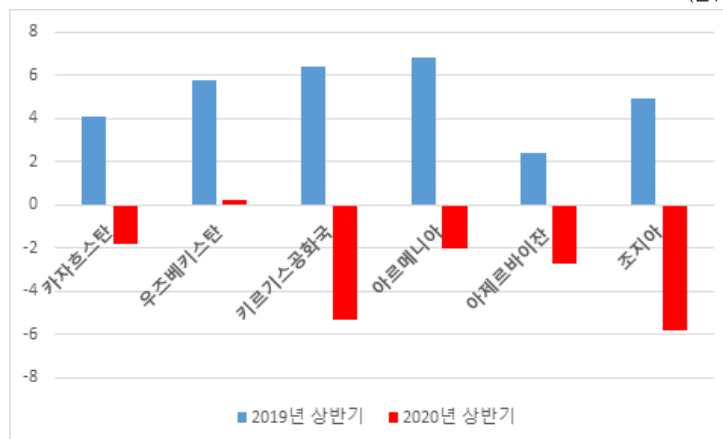
18) FINMARKET.RU(2020. 7. 16), "Экономика Узбекистана в 1-м полугодии выросла на 0,2%"(검색일: 2020. 9. 1).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 국내외 소비 급감, 해외송금 유입 감소, 관광 부문 충격 등으로 2/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아르메니아 경제는 2020년 1/4분기 비교적 양호한 3.9%의 성장을 이어갔으나, 2/4분기에는 교역 및 서비스 부문 충격으로 -13.7% 역성장하면서 2020년 상반기 GDP가 2% 감소함.¹⁹⁾
 - 숙박업, 외식업, 부동산업과 무역업이 가장 크게 위축된 가운데, 2020년 상반기 경제활동지수(Economic Activity Index)가 4.7% 하락함.²⁰⁾
 - 2020년 상반기 총교역액은 3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7% 감소했으며, 수출은 6.5%, 수입은 12.9% 감소함.
- 아제르바이잔은 2020년 상반기 -2.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²¹⁾
 - 1/4분기에는 1.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4분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자원 수요 감소와 공급 감축의 영향으로 경제가 크게 위축됨.
 - 2020년 상반기 산업생산은 184억 마나트로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했으며, 석유 및 가스 부문 생산이 2.8% 감소함.²²⁾
 - 상반기 총교역액은 11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3% 감소했으며, 수출은 4.6%, 수입은 4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²³⁾
- 1/4분기 2.2% 성장했던 조지아는 2/4분기에는 -12.6%의 역성장을 보이면서 2020년 상반기 GDP가 5.8% 감소함.²⁴⁾
 - 2020년 상반기 총 교역액이 50억 7,2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3% 감소했으며, 수출은 15.6%, 수입은 16.5% 감소함.²⁵⁾
 - 월평균 가계소득(세후)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350달러에서 5월 기준 210달러로 4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²⁶⁾

그림 5.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주요국의 상반기 경제성장률

(단위: %)



자료: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공화국 통계위원회, 아르메니아 중앙은행, 아제르바이잔 경제사회개발센터(CESD), Emerging-europe(검색일: 2020. 9. 9).

19) hetq(2020. 8. 21), "Armenia: Economy Slumps 13.7% in 2nd Quarter"; armbanks(2020. 8. 14), "Armenian GDP may shrink by 5% or even more in 2020, according to minister"(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9. 3).

20) hetq(2020. 7. 27), "Armenia's Foreign Trade Volume Dips 10.7% in First Half of 2020"(검색일: 2020. 9. 3).

21) Focuseconomics(2020. 8. 4), "Azerbaijan Economic Forecast"(검색일: 2020. 9. 3).

22) Azernews(2020. 7. 19), "Production in non-oil sector up by 11.2 pct in 2020"(검색일: 2020. 9. 2).

23) Azernews.az(2020. 8. 13), "Azerbaijan's foreign trade turnover hits \$11.7bn in 2020"(검색일: 2020. 9. 2).

24) Geostat(2020. 7. 31), *Rapid Estimates of Economic Growth 2020 June*, p. 2.

25) AGENDA.GE(2020. 7. 13), "Jan-June 2020: Georgian external trade amounts to \$5.072 billion"(검색일: 2020. 9. 2).

26) OC media(2020. 7. 24), "Average household income 'almost halved' in Georgia during the pandemic"(검색일: 2020. 9. 2).

■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세계 원유 수요 급감에 따른 유가 하락, 러시아 경기 둔화 및 루블화 평가절하에 따른 해외 이주노동자 송금 감소 등이 자원수출국 및 해외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양아시아와 코카서스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 및 경제활동 제한조치, 경기침체로 인해 각국의 실업률이 상승함.

나. 기타 주요 영향 요인

■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자원수출국인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 수요 급감에 따른 유가하락 등으로 인해 이중충격을 경험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량이 감소하면서 2020년 상반기 교역이 전년동기대비 7.4% 감소했으며, 수출은 9.1%, 수입은 4.6% 감소함.²⁷⁾
- o 에너지 생산량 감소와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량이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²⁸⁾
- 아제르바이잔은 2020년 1~7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950만 톤의 원유 및 석유제품을 수출했으나, 2019년 동기대비 32억 달러 감소한 63억 달러의 수익을 얻는 데 그침.²⁹⁾
- o 8월 31일 기준 브렌트유가 43달러/배럴에 거래되는 등 2월 중순 급락한 유가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아제르바이잔의 재정균형유가 55달러/배럴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재정적자가 예상됨.³⁰⁾
- 우즈베키스탄은 주요 수출품인 천연가스 수출이 급감했는데, 대중국 천연가스 수출은 60% 이상 감소했고, 대러시아 수출은 중단된 상태임.³¹⁾
- o 그 결과 2020년 상반기 교역량이 전년동기대비 18.2% 감소했으며, 수출은 22.6%, 수입은 15% 감소함.³²⁾

■ [해외송금 유입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 주요 송금국인 러시아의 경기 둔화 등으로 중양아시아(코카서스 포함)로의 송금액이 2020년 최대 23.8%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외송금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아르메니아, 조지아, 키르기스공화국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해외 이주노동자 송금은 아르메니아 GDP의 11.4%, 조지아의 14.2%³³⁾ 키르기스공화국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27) Капитал(2020. 8. 20), "Объемы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РК снизились на 7,4%"(검색일: 2020. 9. 1).
28) КАЗИНФОРМ(2020. 8. 11), "На сколько в Казахстане сократился экспорт и импорт товаров"(검색일: 2020. 9. 1).
29) Hellenicshippingnews(2020. 8. 18), "Azerbaijan exports oil, petroleum products worth \$6.3 billion in 2020"(검색일: 2020. 9. 2).
30) 에너지 부문은 GDP의 1/3, 정부세입의 2/3, 수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아제르바이잔은 재정균형유가를 35달러/배럴로 조정하고 코로나19 대응조치를 포함해 정부 예산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azadliq.org(2020. 8. 5), "Neftin 35 dollar götürülməsinin səbəb və nəticələri"; EBRD(2020. 5), *Regional Economic Prospects: COVID-19 from shock to Recovery*, p. 12(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9. 3).
31) Podrobno.uz(2020. 7. 16), "Экспорт газа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в Китай сократился в 3 раза, в Россию - полностью остановлен"(검색일: 2020. 9. 1).
32) FINMARKET.RU(2020. 7. 16), "Экономика Узбекистана в 1-м полугодии выросла на 0,2%"(검색일: 2020. 9. 1).
33) World Bank, Annual Remittances Data(updated as of Apr. 2020)(검색일: 2020. 8. 31).

(2019년 기준),³⁴⁾ 러시아에서 유입되는 비중이 높아 러시아의 경기변동 및 루블화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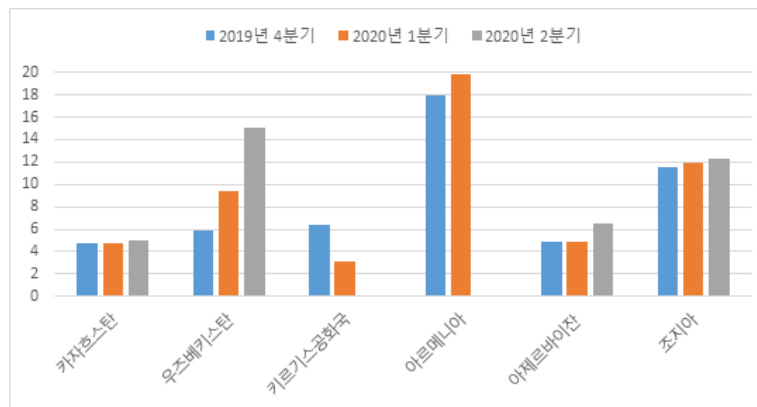
- 전체 해외송금 유입액 중 러시아의 비중은 키르기스공화국 77%, 아르메니아 64%, 조지아 59% 수준임(2017년 기준).³⁵⁾
- ADB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세계 해외송금액이 2018년 대비 최대 18.3% 감소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로의 송금액은 최대 23.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³⁶⁾
- 2020년 상반기 키르기스공화국으로 유입된 해외송금액은 전년동기대비 25.2%, 아르메니아는 17.1%, 조지아는 9.5% 감소함.
- 코로나19 확산 및 경제적 피해가 연간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 키르기스공화국으로의 송금액은 25.2%, 아르메니아 및 조지아로의 송금액은 각각 23.5%, 21.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해외송금 감소에 따라 가계소득이 줄어들면서 빈곤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실업률 상승] 코로나19 봉쇄조치 및 경제활동 위축으로 실업률이 상승함.

- 2018년 7월 이래 4.8%를 유지해온 카자흐스탄의 실업률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고용정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5.0%로 약 2년 만에 상승함.
- 우즈베키스탄의 실업률은 2020년 1/4분기 9.4%, 2/4분기 15%로 크게 높아짐.
- 키르기스공화국의 실업률은 1/4분기 3.1%를 달성했으며, 아르메니아의 실업률은 2019년도 4/4분기 17.9%에서 2020년도 1/4분기 19.8%로 상승함.
- 2019년 4.85% 수준을 유지했던 아제르바이잔의 실업률은 2020년 2/4분기 6.46%까지 치솟으면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임.
- 조지아의 2020년 2/4분기 실업률은 12.3%로 전년동기대비 0.9%p, 전분기대비 0.4%p 증가함.³⁷⁾

그림 6.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국가의 분기별 실업률 추이

(단위: %)



주: 카자흐스탄은 월별로 실업률을 발표하고 있으며, 2020년도 2/4분기 실업률은 최근 발표된 7월 실업률을 적용하여 계산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공화국, 조지아의 2019년도 4/4분기 실업률은 2019년도 전체 실업률임(지난 실업률은 연간 데이터로만 공개). 키르기스공화국과 아르메니아는 2020년도 2/4분기 실업률이 아직 발표되지 않음.

자료: CEIC, World Bank Data, Geostat.ge(검색일: 2020. 9. 4).

34) ADB(August 2020), *COVID-19 Impact on International Migration, Remittances, and Recipient Households in Developing Asia*, pp. 5-9.

35) World Bank, *Bilateral Remittances Matrices 2017*(검색일: 2020. 8. 31).

36) ADB는 6개월 이내에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경우와 코로나19 피해가 2020년 내내 지속될 경우로 시나리오를 구분해 해외송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ADB(August 2020), *COVID-19 Impact on International Migration, Remittances, and Recipient Households in Developing Asia*, pp. 5-9.

37) Geostat(2020. 8. 19), *Indicators of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Population(Employment and Unemployment)-2020 II Quarter*, p. 2.

3. 각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

가.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

■ [비상방역체제 선포] 각국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비상체제에 따라 국경폐쇄, 모임 금지, 공공장소 폐쇄, 교육기관 휴교 및 온라인 강의, 지역간 이동 및 여객운송 중단, 쇼핑몰·카페·레스토랑·제조업 공장 등의 운영 중단 또는 제한, 문화 및 스포츠 행사 중단 등의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함.

- 카자흐스탄은 주요 도시인 누르술탄과 알마티를 봉쇄하는 한편, 정부·공공기관, 보건·의료시설, 언론사, 식료품점을 제외한 모든 기관의 업무를 중지하고, 야외 다중이용시설을 폐쇄함.
- 우즈베키스탄은 국경폐쇄, 이동 제한, 등교 중지, 다중이용시설 폐쇄, 10인 이상 집합 금지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나, 비상사태 선포는 하지 않음.
- 아르메니아는 개인 정보통신데이터에 접근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격리할 수 있도록 ‘국가비상사태 시 법적 체제’와 ‘정보통신’ 법안을 개정함.³⁸⁾
- 아제르바이잔과 키르기스는 필수적인 업무 및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중단했으며, 조지아와 키르기스에서는 밤 9시에서 새벽 6까지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실시함.³⁹⁾

■ [해제] 국가비상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카서스 지역은 4월 말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은 5월부터 점진적으로 제한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함.

- 카자흐스탄은 5월 11일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국제항공 노선을 일부 재개하고, 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를 일부 완화했으며, 키르기스공화국은 5월 11일 비상사태를 해제했으나 비상사태에 준하는 대응방식을 지속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 지역으로 분류해 순차적으로 지역간 교류를 허가하며, 봉쇄조치를 완화하고 있음.
 - 녹색지역에서는 놀이공원을 제외한 모든 야외활동이 가능하고, 정부기관의 민원업무가 정상화되며, 적색지역은 생활 필수업종과 배달업만 영업을 가능하며, 거주지 인근 외출이 제한적으로 허가됨.⁴⁰⁾
- 아르메니아는 5월 4일 이동제한조치를 전면 해제하고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재개했으며, 아제르바이잔은 5월 18일 외출을 전면 허용하고 31일부터는 쇼핑몰·레스토랑 운영 등 대부분의 제재를 해제함.
- 조지아는 5월 23일 00시를 기해 국가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고, 7월부터 국경폐쇄 및 국제항공 운항 중단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음.⁴¹⁾

38) hetq(2020. 4. 1), “Armenia: Parliament Passes Bills to Access Mobile Phone Data to Identify Covid-19 Contact Circles”; NEWS.am(2020. 3. 30), “Armenia government proposes to impose restrictions on right to protection of personal da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8. 31).

39) Anadolu Agency(2020. 3. 30), “Azerbaijan to impose curfew amid coronavirus outbreak”; AGENDA.GE(2020. 3. 30), “Gov’t announces nationwide curfew”(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8. 31).

40) Podrobno.uz.(2020. 5. 7), ‘Светофор для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Узбекистане вводят цветные зоны для борьбы с COVID-19. Разбираемся, что это такое’(검색일: 2020. 9. 3).

■ [2차 대응] 6월부터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국가들은 봉쇄 및 이동제한 조치를 다시 도입하고 비상대응체제를 강화함.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화되면서 각각 7월 5일과 7월 10일부터 2주 간격으로 다시 봉쇄 및 이동 제한조치를 시작함.
- 키르기스공화국은 현재까지 국경폐쇄(허가제로 운영 중), 이동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감염 등 의료체계 과부하로 인해 코로나19 통제가 어려운 상황임.
- 아르메니아는 9월 11일까지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고, 위생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⁴²⁾
- 아제르바이잔은 전국적인 특별검역체제를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바쿠(Baku) 등 확진자가 급증하는 16개 지역에 6월 21일부터 외출 및 대중교통 운행, 모임 등을 제한하는 엄격한 봉쇄조치를 도입함.⁴³⁾

나. 경제정책

■ [방향]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국은 피해 대응 및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지원 패키지를 도입하고 피해 기업 지원, 실업 및 고용 지원, 취약계층 보호, 투자 확대,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실시함.

- 카자흐스탄은 정부예산 재배분과 국부펀드 기금을 활용해 5조 9,000억 텡게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함.⁴⁴⁾
 - 카자흐스탄의 2020년 예산은 유가 55달러를 기반으로 책정되었으나, 4월 초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 20달러로 재조정함.⁴⁵⁾
- 우즈베키스탄은 정부예산 재조정과 국제금융기구에서 지원 받은 대외차입금으로 1조 5,960억 쉘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등에서 코로나19 대응 명목으로 차관을 지원 받고 있음.⁴⁶⁾
- 현재 키르기스 정부는 5억 4,000만 달러 규모의 2차 지원금 편성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2차 지원금은 중소기업 법인세 면제, 소외계층 식료품 보조비용, 중소기업 저리대출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임.⁴⁷⁾
- 아르메니아는 3억 달러 규모(GDP의 2%)의 위기대응 조치를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대출 보조, 고용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 피해 지원을 위한 24개의 패키지를 도입함.⁴⁸⁾
- 아제르바이잔은 19억 4,200만 달러(33억 마나트),⁴⁹⁾ 즉 GDP의 4.1%에 달하는 사회경제 패키지를 도입

41) Agenda.ge(2020. 5. 23), "State of emergency, curfew end, some restrictions remain in Georgia"(검색일: 2020. 8. 31).

42) Asbarez(2020. 8. 6), "Armenia Extends COVID-19 State Of Emergency"(검색일: 2020. 8. 31).

43)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하루 한 번, 2시간 이내의 외출만 허용하는 엄격한 제한조치를 실시했으며, 대중교통의 주말 운행을 중단함. MENAFN(2020. 8. 19), "Lockdown extended in country"; "Azerbaijan extends coronavirus lockdown"(2020. 7. 2)(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8. 31).

44) Казинформ(2020. 5. 6), "5,9 трлн тенге на антикризисные меры о расходах выделяемых средств рассказали в Минфине РК."

45) REPORT.AZ(2020. 4. 8), "Казахстан откорректировал бюджет с учетом цены на нефть в 20 долларов."

46) Газета.uz(2020. 4. 15), "Миnфин раскрыл доходы и расходы Антикpизисного фонда"; Газета.uz(2020. 5. 6), "США выделили \$2млн на борьбу с COVID-19 в Узбекистане"; Forbes(2020. 6. 5), "Канада передаст Узбекистану \$185 тысяч на борьбу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Газета.uz(2020. 6. 30), "Южная Корея предоставит Узбекистану \$5млн на борьбу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47) IMF, "POLICY RESPONSES TO COVID-19"(검색일: 2020. 9. 4).

48) IMF, "POLICY RESPONSES TO COVID-19"(검색일: 2020. 9. 4).

하는 한편, 보건 부문 지출을 확대하고 코로나19 대응 펀드를 조성함.

- 조지아는 4월 11억 560만 달러(34억 GEL), 즉 GDP 6.8% 규모의 위기대응계획을 발표함.⁵⁰⁾

■ [기업 지원] 각국 정부는 △법인세 납부 연기 △저리대출 확대 △대출조건 완화 등 기업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다방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4월(12%에서 9.5%로 인하), 7월(9.5%에서 9%로 인하) 2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며, 금융기관에 6개월간(최대 1년간)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대출 조건을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동결할 것을 권장함.⁵¹⁾
 - 카자흐스탄은 6,000억 텡게를 저리대출, 세제 혜택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투입함.⁵²⁾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4월 기준금리를 16%에서 15%로 인하했으며,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상환기한 연장을 시중은행에 권고함.
- 아르메니아 중앙은행은 2020년 들어 리파이낸싱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해(총 1%p) 4.5%로 조정하고, 기업 대상 대출을 확대함.⁵³⁾
 - 원자재·장비·식료품 구입에 대한 우대대출, 중소기업 부채 경감을 위한 무담보 대출(2,000~5,000드람, 3년 기한)을 제공하고, 농업 부문 대출 금리를 인하함.⁵⁴⁾
- 아제르바이잔 중앙은행은 2020년 6월과 7월 리파이낸싱 금리를 각각 0.25%p씩 인하해 6.75%로 조정하는 한편, 유동성 지원을 위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2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함.⁵⁵⁾
 - 기업 대출 지원에 15억 마나트를 배정해 신규 발행 대출의 60%를 정부가 보증하고,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 이자를 1년간 보조함.⁵⁶⁾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2020년 5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조세혜택과 임시 조항을 반영하여 세법을 개정함.⁵⁷⁾
- 조지아 중앙은행은 2020년 리파이낸싱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해(총 1%p) 8.0%로 조정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유동성 관리조치를 도입함.⁵⁸⁾

■ [개인 지원] 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실업수당 △육아수당 △세금 면제 또는 기한연장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실업자·개인사업자에게 현금 지원 △연금 및 복지 혜택 확대 △유아·청소년 양육가

49) 1USD = 1.69898AZN. xe.com(검색일: 2020. 9. 2).

50) 1USD = 3.07526GEL. xe.com(검색일: 2020. 9. 2). GDP 대비 비중은 2019년 명목GDP를 기준으로 산정함. Geostat. Gross Domestic Product(검색일: 2020. 9. 4).

51) IMF, "POLICY RESPONSES TO COVID-19"(검색일: 2020. 9. 4).

52) Kapital.kz(2020. 4. 14), "Свыше 600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обратились за льготными кредитами."

53) REUTERS(2020. 6. 16), "Armenia central bank sets key refinancing rate at 4.5%"(검색일: 2020. 9. 4).

54) News.am(2020. 4. 17), "Փաշինյանի համառոտ ներկայացրեց հակաճգնաժամային 13 միջոցառումները եւ թե որքան աջակցություն է ստանալու յուրաքանչյուրը"(검색일: 2020. 9. 4).

55) Central Bank of Azerbaijan(검색일: 2020. 9. 4).

56) ModernDiplomacy(2020. 4. 23), "Azerbaijan's response to COVID-19 related economic problems"(검색일: 2020. 9. 4).

57) Azernews(2020. 5. 8), "Azerbaijani Parliament adds new chapter to tax code"(검색일: 2020. 9. 4).

58) Central Bank News(2020. 6. 24), "Georgia cuts rate 2nd time as inflation outlook lowered"(검색일: 2020. 9. 4).

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보건·의료 예산 증액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육아지원금 추가 지원 등 사회·복지 정책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ADB, AIIB, IDB 등 국제금융기구에 금융지원을 받아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키르기스 정부는 △납세기한 연장 △재산세 면제 △11개 필수품목의 가격 상한제 시행 등을 위해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특별 지원 패키지를 승인함.⁵⁹⁾
- 아르메니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 규모와 임금수준을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혜택을 제공하고, 피해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그리고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접지원금을 지급함.⁶⁰⁾
- 아제르바이잔은 실직자 1인당 112달러(190마나트)의 일시불 지원금을 지급함.⁶¹⁾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보호의 일환으로 아르메니아는 △14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207달러(10만 드람)의 지원금 지급 △가스 및 전기 이용 요금 보조 △수업료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지아 역시 공공요금 3개월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함.⁶²⁾

■ [관광산업 지원] 우즈베키스탄과 조지아는 코로나19 여파로 큰 타격을 받은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특별 지원정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5월 28일 관광산업 피해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승인했으며, 6월 19일 추가 조치를 발표함.⁶³⁾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법인·소득세 50% 감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여행자 세금(Tourist tax) 면제 △무이자 융자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추가 조치를 통해 숙박·레저 시설 건설비용, 방역비용 등을 제공하고, ‘녹색’ 및 ‘황색’ 지역의 관광 영업을 허가함.
- 조지아는 관광업 활성화 및 국제관광 재개를 목표로 6,250만 달러(2억 라리) 규모의 관광산업 지원조치를 실시함.⁶⁴⁾
 - △관광기업의 재산세 4개월간 면제 △소득세 납부기한 2020년 11월 1일까지 연기 △소규모 호텔 대출이자의 80%를 6개월간 정부 보조 △고용을 유지한 회사에 정부보조금 지급 △실직자 대상 보조금 6개월간 지급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대상 보조금 1회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함.

59) "POLICY RESPONSES TO COVID-19"(검색일: 2020. 9. 4).

60) News.am(2020. 6. 18), "Armenia government approves 20th anti-crisis measure"; News.am(2020. 6. 25), "Armenia government approves 22nd anti-crisis measure."

61) ModernDiplomacy(2020. 4. 23), "Azerbaijan's response to COVID-19 related economic problems"(검색일: 2020. 8. 31).

62) AGENDA.GE(2020. 4. 1), "2 billion GEL allocated to stimulate Georgian economy during coronavirus crisis"; Public Radio of Armenia(2020. 3. 26), "Armenian Government approves package to offset the economic impact of COVID-19"(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8. 31).

63)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У(2020), "О неотложных мерах поддержки сферы туризма для снижения негативн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пандемии";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У(2020),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по развитию сферы туризма при строгом соблюдении требований усиленного режима санитарн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64) Civil.ge(2020. 5. 7), "Georgia Unveils Tourism Stimulus Plan, Country to Reopen for Int'l Tourists in July"(검색일: 2020. 9. 4).

4. 전망 및 시사점

■ [경제 전망] 중남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은 원자재 의존도가 높고 주요 교역국이 일부 국가(중국, 러시아)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 코로나19 대유행 동향과 주변국의 경제회복 속도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2020년 전망] 자원수출국⁶⁵⁾의 경우 생산 및 글로벌 수요 감소, 자원 가격 하락 등으로 GDP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 및 이주노동자 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 동제한 등으로 인한 관광수입 급감과 해외송금 유입액 감소가 경제 회복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⁶⁶⁾
 - 2020년 중남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 전체 경제성장률은 -1.5%로 전망되고 있으며, 자원수입국이 -4.6%, 자원수출국이 -1.1%로 자원수입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⁶⁷⁾
 - 세계은행은 2020년 남부 코카서스가 -3.1%, 중남아시아가 -1.7%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함.⁶⁸⁾
- [2021년 전망] 2020년 세계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으로 인해 기록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2021년은 기저효과와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증가로 각국의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2021년 국제유가 회복과 글로벌 수요 개선에 따라 국내 경제도 동반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⁶⁹⁾
 - 조지아와 키르기스공화국은 2021년 주변국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송금유입액이 증가함과 동시에 국내 소비도 활성화되면서 2020년 대비 경제성장률이 각각 3.9%와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⁷⁰⁾
 -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와 석유가 전체 수출의 1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바, 2021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인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⁷¹⁾

65) 자원수출국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임.

66) IMF(July 2020), *Regional Economic Outlook July 2020 Update,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p. 5.

67) IMF는 자원수출국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자원수입국을 아르메니아, 조지아, 키르기스공화국, 타지키스탄으로 분류하고 있음. IMF(July 2020), *Regional Economic Outlook July 2020 Update,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p. 11.

68) 중남아시아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함. World Bank(2020, June), *Regional Outlooks*, p. 22, pp. 39-42, pp. 51-52.

69) 카자흐스탄은 국제유가 회복 및 자원 수출 증가가 주요 성장요인이 될 것이며, 텐기즈 유전 확장으로 원유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EIU(August 2020), "Country Report. Kazakhstan," p. 8; EIU(September 2020), "Country Report. Azerbaijan," p. 8.

70) 키르기스는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주요 수출품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수출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송금유입액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EIU, "Country Report. Kyrgyz Republic. Q3," p. 14; EIU, "Country Report. Georgia. Q2," p. 8.

71) EIU, "Country Report. Uzbekistan. Q2," p. 9.

표 1. 중아시아 및 코카서스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EIU		IMF		World Bank		IHS Markit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카자흐스탄	-2.2	3.6	-2.5	4.1	-3.0	2.5	-5.6	3.5
우즈베키스탄	0.9	6.1	1.8	7.0	1.5	6.6	0.8	3.9
키르기스공화국	5.0	3.8	-4.0	8.0	-4.0	5.6	-4.9	3.3
아르메니아	-3.9	5.0	-1.5	4.8	-2.8	4.9	-3.4	3.9
아제르바이잔	-3.5	1.9	-2.2	0.7	-2.6	2.2	-5.4	1.2
조지아	-4.5	3.9	-4.0	3.0	-4.8	4.0	-5.2	2.6

자료: EIU Country Report. Kazakhstan(August 2020); EIU Country Report. Uzbekistan(Q2); EIU Country Report. Kyrgyz Republic(Q3); EIU Country Report. Armenia(Q3); EIU Country Report. Azerbaijan(September 2020); EIU Country Report. Georgia(Q2);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0 April);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Europe and Central Asia(June 2020); IHS Markit Economic-Kazakhstan(24 August 2020); IHS Markit Economic-Uzbekistan(26 August 2020); IHS Markit Economic-Kyrgyzstan(26 August 2020); IHS Markit Economic-Armenia(25 August 2020); IHS Markit Economic-Azerbaijan(2 September 2020); IHS Markit Economic-Georgia(25 August 2020).

■ [방역] 중아시아와 코카서스는 3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초기 강력한 방역조치로 급격한 확산을 방지했으나, 5~6월 방역조치를 완화한 이후 확진자가 급증함.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5월 지역 간 이동제한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허가하면서 6월 확진자가 증가한바, 8월 말부터 시행 중인 완화조치는 단계적으로 추진 중임.
-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역시 지난 5월 이동제한 등 봉쇄조치를 해제한 이후 확산세가 가속화되었으며, 이에 방역조치 완화에 대한 각국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국제협력 및 시사점] 중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은 기초적인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는 있으나 전염병 대응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며, 전반적인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바, 한국은 ODA 사업 등을 활용해 의료분야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IMF, WB, ADB 등 국제금융기구는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시설·장비 현대화 명목으로 중아시아에 유·무상 차관을 제공하고 있음.⁷²⁾⁷³⁾⁷⁴⁾
 - 중아시아 국가 중 키르기스공화국이 가장 먼저 IMF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국제금융기구 외에 한국, 미국, 캐나다 등 개별 국가의 차관을 지원 받고 있음.
 - 중아시아는 금융지원 외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개인 보호장비, 의료설비 등을 지원 받고 있으며,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 수차례 의료용품을 지원함.
- 코카서스 지역도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및 미국·EU 등으로부터 코로나19 예방 및 검사,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 보호조치, 보건시스템 강화 등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 있음.
 - 조지아는 총 30억 달러의 코로나19 대응자금을 조달했으며, 아르메니아는 세계은행에서 300만 달러, IMF에

72) ADB(2020. 8. 28), "АБР одобрил грант для Казахстана в размере \$3 млн для борьбы с COVID-19"(검색일: 2020. 9. 2).

73) IMF, "POLICY RESPONSES TO COVID-19"(검색일: 2020. 9. 4).

74) Regnum(2020. 4. 7), "Узбекистан получит кредит в \$2 млрд на борьбу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검색일: 2020. 9. 3); Regnum(2020. 4. 20), "Ислам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 выделил Узбекистану \$7 млн"(검색일: 2020. 9. 3); Радио Озоди(2020. 9. 7), "Узбекистан получит кредит в \$20 миллионов от доноров для борьбы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검색일: 2020. 9. 7).

서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SDR 지원을 승인 받음.⁷⁵⁾

- 한국은 코로나19 시대 높아진 K-방역 위상을 활용해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 국가와 의료·보건 협력을 구축·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임.
- 카자흐스탄 및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의 의료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한국에서 전문가 파견, 진단키트 지원, 의료진간 교류 등을 진행하고 있는바, 향후 한국의 의료기술을 공유하면서 한국산 의료장비, 의료용품, 의약품 등을 수출할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임.
- 코카서스 지역 국가들은 모듈식(조립형) 병원 건설 등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장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ODA, KSP 등을 활용해 코카서스 지역 국가와 의료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임. **KIEP**

75) Bank of Georgia(2020. 8. 20), *Investor Presentation:2Q20 and 1H20 Financial Results*, p. 60; World Bank 보도자료(2020. 4. 3), "World Bank Supports Armenia to Combat the Human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IMF, COVID-19 Financial Assistance and Debt Service Relief(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9. 4).